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활동을 마치고....



(주)유성계전
대표 이진락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전기 산업진흥회가 1년전부터 단장님(공창덕 상근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준비한 아프리카 전기산업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돌아와 방문국에 대한 소개, 시장상황 그리고 상담활동 등에 관련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개척단에는 국내 중전기 업체 8개사가 참여 하였는데 그동안 수출이 미미한 아프리카 시장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중전기 기 현황, 수출 시장조사, 기술교류 창구 확보, 한국 제품의 우수성 및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후원과 함께 방문국의 한국대사관과 KOTRA 에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우리 참가 업체와 제품에 대한 홍보와 시장성을 파악하여 주었고 현지 관련기관 과 업체들을 접촉하여 충실히 준비를 하여 줌으

로서 우리 개척단이 활동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개척단이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한 내용을 소개해 보면,

● 남아프리카공화국

6월 25일 오후 7시2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6월 26일 새벽 7시 20분 — 19시간의 긴 비행시간 끝에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현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을 풀 여유도 없이 개척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당일 아프리카 전자전기부품박람회 (ADEC 2001 및 CABLING WORLD)를 참관하였는데 60개 업체가 참가하여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내실있는 박람회로 보였고 현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도 참가하고 있어 상담 못지 않

게 우리나라의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음날 6월 27일에 본격적인 수출상담회가 개최되었는데 KOTRA에서 주선한 바이어들과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와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엄선한 바이어들이 관제로 성과가 클 수 있었다

남아공에는 ALSTOM, ABB 등 미국계, 유럽계가 많이 진출하여 이미 선진 기술이 정착되어있어 기술수준은 높고 또한 영국 등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또 자국 생산도 하지만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였다

남아공의 총 수입시장 규모는 2000년에 약 US\$ 329억 정도로서 한국은 4.9억불을 수출하여 총 수입시장의 1.5%(14위)를 점하고 있으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14개국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전체 GDP의 1/3를 점유하고 있는 큰 시장이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수출업자에게 90-120일의 D/A거래나 USANCE L/C 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L/C거래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거래시 L/C거래를 고집할 경우 계약 성사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담시나 대화시 인종차별에 관한 언급은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흑백간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남아공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종을 비판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절대 금기시 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간의 차별이 없어 국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남녀간 차별적인 시각을 가져서도 좋지 않다고 한다.

● 케냐

6월 28일 비행시간 4시간 걸려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였다. 김포공항 국내선규모인데 시설은 열악하였고 시내는 매연이 극심하였다.

도착 이틀째인 6월 29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권종락대사님과 나이로비 무역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상담회 전날 대사님 부인께서 만찬을 직접 준비하여 주시고 대사님이 상담할 회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참가회사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에서 간단한 식사

보이며 걱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상담회에도 직접 참석하여 주셨을 뿐
만 아니라 개척단을 적극 지원하여 주
시어 소위 세일즈대사라는 말을 실감
할 수 있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사관과 무역관에서 미리
arrange한 바이어들과의 상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사관과 무역관은 모두 우리나라
자동차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케냐의 전기산업은 몇몇 주요 단체
와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1997년 전력공급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KENYA ELECTRIC GENERATING
COMPANY가 모든 발전소 및 시설을 관장하
고 있다. KPLC는 송배전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이원화 체제였다

케냐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시장성은 좋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전기사정이 좋지 못하여
잡은 정전과 불안정한 전압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이며 몸바사
항구, 도로 및 철도등 인프라 시설이 인근국인
탄자니아, 우간다(내륙국)등과 비교해서 잘 발
달되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지역으로서 중요
성이 있는 시장이다.

케냐의 수입절차는 수입업체가 Proforma
Invoice 등을 첨부하여 세관으로부터
IDF(Import Decaralation Form)

발급(CIF 금액의 2% 부과하며 추후 통관시
세관에 납부) 받아 L/C를 개설하여 동 사실을



▲ 사파리 관광을 준비하며 일행들과 함께

통보하면 해외수출업체는 인보이스 금액이
\$5,0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사전 선적전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사전 선적전 검사를 위해
COTECNA Inspection SA의 한국 검사대
행기관으로부터 Preshipment Inspection(사
전선적전검사) 실시한 후 CRF(Clean report
finding)을 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은행에 내고
해야 한다.(선적전 1주일 이전 검사)

● 이디오피아

케냐에서 항공편 사전 예약 제도가 제대로 되
어 있지 않아 우여곡절끝에 이디오피아에 도착
하였으나 입국 수속에 1시간이나 걸리기도 하
였다

수력발전 잠재력이 아주 커(약65,000MW 로
추산) 그중 20-25%가 개발가능하고 현재 7개
의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발전량은 440MW로서

잠재력의 1%만 개발된 실정이다. 지금 여러개의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각종 원소가 이루어지면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디오피아에서는 대사관에서 무역관의 업무 및 여행관련 일까지 다해내고 있었다.

특히 김창수대사님이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관련 업체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여주시고 우리 참가 업체의 COMPANY PROFILE까지 깔끔하게 제작하여 이디오피아 참석자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하여 주셨다. 덕분에 7월2일 상담회를 잘 치룰 수 있었다.

현지의 매스컴들도 우리 개척단과 제품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열을 올리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우리업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이디오피아 경제인이 많았다

현재 경제현황은 에리트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악화되어 있으나 종전후 점차 회복되는 상황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원조공여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재개되어 경제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품에만 부과되었던 10%의 특별세를 2000.12월말부터 폐지하였고 수입 신용장개설 요건은 완화(물품대금의 100% 적립 의무를 폐지)하는 등 수입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구 약 6,100만의 사하라 이남 두 번째의 인구대국이고 자원이 풍부하여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며, 특히 미국, 세계은행 등이 이디오피아에 대해 원조를 강화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아직 통신, 도로, 수도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본 시설 설치에 장시간 소요되고 (아디스 아바바의 경우 도로 포장률이 13.3%, 전화 보급률이 18% 등) 항구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 큰 장애요인이다

복잡한 통관절차와 시설 미비 등으로 통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며, 신용장 개설 등 수입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신용장에 이디오피아 국적선박(Ethiopian Shipping Line)을 이용하는 조항이 포함되고 있는데 ESL은 대체로 월 1회 일본-에리트리아 Assab항 운항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결항하는 경우가 많아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디오피아는 한국전쟁의 유엔 참전국 중 하나로 많은 고귀한 생명이 한국 땅에서 산화하였다. 특히 참전군인들은 왕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적잖이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았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며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지금 그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리고 하루 빨리 국가경제가 재건 되어야하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 후기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몇 가지를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나라지만 영국등 유럽계의 국가라는 인상이 깊었는데 상당히 유럽기술과 문화가 바로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시장과 남아공의 독특한 독점 에이전트 상관습을 주목하여야 할 것 같다

케냐는 많은 지역이 자연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또한 광활한 면적의 유희지가 많이 있어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면 엄청난 식량 자원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미개발 초지는 끝이 안보일 정도로 정말 넓었다

또한 사방 150km, 250km의 광활한 사파리 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Lodge는 단출하고 아담하였으나 아주 깨끗하고 일류 호텔 못지않게 이용하기에 편리하였다.

앞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 개발에 노력한다면 막대한 자원과 함께 향후 동아프리카의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이디오피아는 아직도 사회주의 제도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달러 소지가 안 되어 소지한 외화를 공항에서 환전하여 영수증을 받고 이것으로 대금 사용 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심한 외화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전쟁 후유증으로 아직도 열악한 상태이나 각국과 국제기관의 원조에 힘입어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하여 본다. 또한 나일강을 이용한 수력 발전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 본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전력개발관련 차관 제공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개척단을 주관한 진흥회 관계자, 지원해주신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방문국가의 대사관과 무역관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같이 참가한 업체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 자유롭게 노니는 초원의 야생동물들